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0호 【루계 제25709호】 주체106(2017)년 7월 19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단위들이 늘어난다

함경북도와 자강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함경북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3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나가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도와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를 붓고 전투현장들에서 강연선전과 경제선동을 배합한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년간 철강재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였다.

용해공들과 압연공들, 가열공들은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천영웅소대원들처럼 살며 투쟁할 불같은 열의밑에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유도로와 압연기, 가열로에 만무하를 걸었다.

연사, 유선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벌목공들은 룡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바로 정하고 물전기재들에 대한 자점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이들은 채벌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통쏘이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온성룡남탄광의 탄부들은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막장조건에 맞는 탄차들을 제작하였다. 탄광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수십m나 되는 사갱의 로반닦기와 레루, 권양기설치를 한주일동안에 해제껴 석탄운반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석탄운반속도를 배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일석탄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고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거세찬 투쟁의 불길은 수산,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세차게 타번지였다.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새 기록을 창조할것을 결의해나선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지난 4월말까지 상반년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하였다. 그 기세로 여름철 물고기잡이전투에 련속 진입한 어로공들은 항차당, 기망당 어획고를 부쩍 높이며 포구에 만선의 배고동소리 계속 높이 울려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의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선박들과 어구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109.7%로 초과완수하였다. 특히 년간 배수리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하여 배수리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도안의 피복공장들에서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를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경성, 로항은하피복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피복공장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진영예군인학용품공장, 무산금강림산사업소, 청진스레트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실현하여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공장, 기업소대렬이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 *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한 자강도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년간계획을 완수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홍주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주청년2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10돐이 되는 올해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집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홍주청년2호발전소를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전력생산에서 앞서나가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이곳 발전소에서 창조되고있는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주청년2호발전소에서 지난 5월 31일까지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1호, 3호발전소들에서도 년간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국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100여개 작업소들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면서 설비, 자재보장사업에 힘을 넣어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 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가 룡나무증산성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강계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단위들에서 올해 룡나무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희천돌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여 당에서 준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사상공세를 힘있게 돌이대면서 돌가공에 필요한 연마석, 톱날, 원석운반쇠바줄, 권양기쇠바줄을 비롯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앞질러가며 보장해주었다. 이에 고무된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맡겨진 년간 관석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차가정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 열의밑에 작업반별, 직장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세멘트생산에서 최고기록을 세웠다. 그리하여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계속 공격전을 들이대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광산분사업소의 로동자들은 세멘트생산의 첫 공정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굴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종전보다 굴진속도를 높여 원석생산계획을 매일 1.5배로 수행하였다. 내화물직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내화벽돌생산량을 훨씬 늘이였으며 소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수기일이 30일이상 걸리던 2개렬가소탑 2단, 4단회리통보수를 단 10일만에 끝내고 시간당, 교대당 크링카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뜻하지 않게 소성로를 세우게 되였을 때에도 뜨거운 로속에 뛰여들어 48시간동안 치렬한 전투를 벌려 로보수기일을 단축하고 크링카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900여종의 새 제품 개발

경공업성산하 공장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로 끓어번지는 경공업성산하 공장들에서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성적으로 새로 개발된 기본품종과 확대품종은 900여종에 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정책을 받들고 방직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이들은 번지줄무늬양복천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따르는 여러종의 봄, 가을양복천을 개발해내고 가방천과 운동복, 신발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물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방직천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속에 평양인견사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데트론인견사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해내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100% 국산화된 레이자에 의한 콤퓨터체본제작기로 여러가지 무늬천들을 개발생산하였으며 함흥모방직공장에서는 잔디일 엮음연사기, 인공잔디직기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하고 인공잔디잎생산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식의 인공잔디를 훌륭히 만들어냈다.

인민들이 즐겨찾는 기능성편직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해낼 열의밑에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뜀성뜨개속옷과 뜀성무늬레스 등을 련이어 개발한데 이어 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새 제품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온 평양양말공장에서는 최근에만도 《철쭉》상표를 단 학생양말바지, 녀자봄가을양말바지, 운동양말을 비롯한 수십종의 질좋은 양말들을 우리의 천료와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류원, 평양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신발공장들에서도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도안창작가들의 역할을 높여 신발공업관리국적으로 계절적특성과 다양한 용도에 따르는 200여종의 남, 녀구두와 운동신발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우리 상표를 단 인기상품의 가지수를 계속 늘여가고있다.

존엄높은 주체의 백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긍지드높이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다그치면서 새 제품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잣나무림조성기술 완성, 각지에 도입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에서 또 하나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종전보다 잣생산시기를 앞당기면서도 정보당 수확량을 부쩍 늘일수 있는 우리 식의 잣나무림조성기술을 완성하고 전국에 도입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새로 조성한 잣나무림들의 생산성을 최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는 이 땅에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이것을 명심한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 과학자들은 잣나무림조성기술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그 길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리명철, 로춘호 동무들이 이 연구과제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해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갔다.

산림연구원과 경제림연구소, 린산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당에 대한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가치있는 잣나무림조성기술을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훌륭하게 완성된 우량품종의 잣나무밀식림조성기술은 실생잣나무림에서보다 잣생산시기를 8-10년정도 앞당기면서도 정보당 7배이상의 수확량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린산군의 해당 지역 산지에 조성된 우량품종의 잣나무밀식림이 이 기술도입의 경제적가치를 높은 잣생산성과로 증명하고있다. 연탄, 정산, 서흥, 중화, 은산군, 원산시, 강서구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 산지들에서 진행된 눈접방법도입결과도 새로 육성한 우량품종들의 정보당 잣생산량이 일반잣나무에 비하여 1.5배이상 더 높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눈접방법과 밀식재배기술을 합리적으로 결합한것은 산림토지를 경영목적에 따라 보다 지속적으로, 집약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과학적담보로 된다. 우량품종들의 키가 일반잣나무들에 비해 훨씬 작다는것과 필요한 시기에는 솎음베기를 하여 잣과 목재생산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다는것이 그 한축면이다.

지금 중앙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산림과학기술성과를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벌써 10여개의 시, 군들에 우량품종의 잣나무모를 대량적으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기지들이 마련되였다. 송원군에서는 여러 지구에 조성한 2천여정보의 일반잣나무림들을 경제림연구소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량품종밀식림으로 개조해나가고있다. 강남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리용가치가 적은 나무림을 우량품종의 잣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이 기술을 적극 리용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제품의 질제고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파갈한 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과 함께 질제고열풍이 휘몰아쳐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년기간 전력, 보건, 식료 등 여러 부문의 11개 생산단위들에서 여러점의 제품들과 25개 생산공정에 대한 제품인증,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채신, 기계, 식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21개 단위들에서 생산되고있는 50여점의 제품들이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쓰고살 모든 생산물과 건설물은 마땅히 그 질에 있어서 최상의것이여야 합니다.》

상반년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인증, 관리체계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였다.

평양전기기구공장 일군들은 질제고에서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이를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하여 각이한 전압단계에 효과적으로 도입할수 있는 정전축전기들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제품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곡산공장, 선흥식료공장, 만경대경흥식료공장, 평천고려약공장에서는 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는데 큰 힘을 넣고 이 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갔다. 특히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평양곡산공장의 강냉이가공공정과 파자, 효소, 사탕생산공정이, 선흥식료공장의 빵, 사탕, 과자, 음료생산공정이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다. 만경대경흥식료공장과 평천고려약공장에서도 빵, 과자, 강정, 사탕생산공정과 여러 알약생산공정들에 대한 관리체계인증을 받음으로써 제품의 질제고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안아왔다.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 하당은하피복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규격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수액, 물약, 알약, 약엿, 차제생산공정과 피복제품생산공정, 사탕생산공정 등에 대한 관리체계인증을 받았다.

상반년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2월2일제품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졌다.

평양326전선공장, 안주뽐프공장, 평양통신기계공장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조건과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조직하고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결과 평양326전선공장의 콘라전선과 안주뽐프공장의 홈빨음원심뽐프, 평양통신기계공장의 자동전화기가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과학기술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평양정향전자공장에서는 유기질수성외장재, 유기질수성내장재를 비롯한 12점의 제품들에 대한 2월2일제품등록을 받았으며 보향화장품공장에서도 화장품조(6종), 화장품조(8종), 삼푸, 린스, 살결물, 폴크림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받았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락랑봉화피복공장에서도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었다. 그리하여 데트론인견사프천, 데트론인견양복천 그리고 5가지의 녀스크림이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곡산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백두산들쭉가공공장, 만년제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인민생활향상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각종 식료품, 의약품들에 대한 2월2일제품등록을 받았다.

지금 전국각지에 휘몰아치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속에 제품의 질제고사업에서는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

황해남도에서

황남땅이 큰물피해막이전투로 끓어번지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큰물피해막이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도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80여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언 100여㎞의 하천을 정리하였다. 또한 연 25㎞의 해안방조제보수공사, 180여㎞의 승수로치기, 1 000여㎞의 배수로정리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큰물피해막이를 위한 전투를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치렬한 싸움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모든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였다.

협동벌마다에서 방송선전차, 로전방송기재, 전투속보 등이 기동성있게 전개되여 대중을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도당직외강연강사들이 여러 군들에 달려나가 집중강연선전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려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협동벌들이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큰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의 드높은 열의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군들이 큰물피해막이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황해남도의 기본혁명과업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긴 일군들은 과학적인 타산밑에 큰물피해막이대책을 혁신적으로 세워나갔다. 일군들은 하루밤에도 백수십리길을 달려가 긴요한 자재들과 부속품들을 해결해오고 어려운 모퉁이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불러일으켰다.

자신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지워져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도의 책임일군들이 시, 군, 협동농장들에 나가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자재와 로력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주요지수지들에 전투화지를 정한 도급기관의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두말을 떨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결사의 각오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갔다.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다.

해주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과 어깨겯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장마철피해막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들은 하루동안에 3천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의 장석을 쌓아 1 600여m의 하천공사를 진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안악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2일동안에 90여개소의 180여㎞의 배수로를 정리하였다.

연안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수백㎥의 장석공사와 수백m의 해안방조제보수공사, 1 200여m의 배수로정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또한 1만 5천여㎥의 감탕을 파내고 장석공사를 하면서 하천공사를 다그쳤다.

벽성군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3일동안에 1만 2천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하천을 정리하여 수백정보의 포전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제령군, 봉천군, 배천군, 은천군, 태탄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군들에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과 어깨겯고 큰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벽성군 남창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애국지사

려운형선생과 그 후대들이 받아안은 숭고한 사랑과 믿음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파란만장의 풍운을 겪으며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려운형선생.

품속에서라도 민족의 태양을 뵈옵고저 몽양이라 호를 지었던 그가 마침내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것은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혁명가로 두번다시 태어난 새 인생의 출발점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직후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려운형은 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에 감화되여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투쟁하는 새로운 길에 나섰습니다.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영향을 주시여 키우신 혁명전사입니다.》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나라찾을 청운의 뜻을 품고 독립운동에 나선 려운형선생은 동서방의 유명한 정치인들도 만나보았고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 공산주의에서 민족주의에로 리념의 장벽도 넘나들며 진정한 독립의 길, 민족해방의 진로를 찾아 모대기였다.

조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사상, 절출한 위인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하던 그때 백두산에서 희망의 서광이 비쳐왔으니 그것은 만고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의 때만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항일전을 벌리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이였다.

주체26(1937)년 6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은 직후였다. 그때 서울에서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있던 려운형선생은 이 소식을 특별보도로 신문에 크게 싣고 보천보로 달려갔다. 그때 벌써 그의 마음은 김일성장군님께로 쏠리고있었던것이다.

그후 김일성장군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그의 마음은 더욱 강렬해져 후날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고 백두산에 혈맥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뢰가 남달리 뜨거웠기에 려운형선생은 일제가 패망하자 서울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되였고 또 어느날인가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시국연설을 하던 도중 장차 조선을 바로잡을 웅도자는 누구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그분은 정양에 개선하신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큰소리로 확답을 내려 만장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려운형선생이 해방후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가르치심을 받고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뵈온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어느날 사선을 헤치며 38°선을 넘어온 려운형선생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그를 국내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애국지사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립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것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였다.

건국을 위해서는 전민족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식이 아닌 조선식민주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며 려운형선생은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수 없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품과 비상한 식견, 넓은 도량과 포옹력, 참다운 애국애족의 옹지에 끝없이 매혹될수록 이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일구월심 찾고찾던 만민의 위대한 태양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우리 조선이 나아갈 길이 환히 내다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남조선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의 이름있는 정치가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만 장군님 같으신분을 만나뵙기는 처음입니다! 걸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군님이 계심으로 하여 우리 조선에 대통운이 트였습니다!》

이것은 곡절많은 60평생 그의 심장속에서 처음으로 스스럼없이 터져나온 신념의 목소리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서울로 돌아간 후 모든 일을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하였으며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투쟁원칙을 드팀없는 신조로 삼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갔다. 주체36(1947)년 7월 19일 원쑤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자기의 신조를 단 한치도 어기지 않았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정의 마음을 안고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에 한몸바친 열혈의 애국투사 려운형선생, 그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지만 그 고결한 애국의 넋은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빛을 뿌렸다.

려운형선생이 백주에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반동들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 1주년 기념대회에서 선생을 추모하도록 조치를 위해주시였다. 그리고 려운형선생의 장례식에 조의대표를 보내도록 하시고 유가족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북으로 들어온 려운형선생의 유가족들이 안착된 생활을 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느해 1월 1일 아침에는 온 나라 인민들앞에서 하신 신년사시간까지 미루어가시며 그의 자녀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 온갖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정녕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몸을 바친 려운형선생을 못 잊어하시며 그와 그의 후대들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뜨거워만 지는것이였다.

려운형선생이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때로부터 어언 수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어느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추억하시며 려운형이 1948년까지만 살아있었어도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아마 더 큰일을 하였을것이라고,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찌기 갔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고귀한 동지적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을 자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극진히 돌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1월 어느날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을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선생의 딸인 려연구동무가 곧 서울에 간다는것을 아시고 이번에 서울에 가면 아버지묘소에 가보라고, 려운형선생의 보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려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순간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은 형언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려운형선생의 묘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화환에 드리워진 댕기에는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이날 려연구동무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불효막심한 이 딸은 40여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령전에 섰다고,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를 민족의 영웅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 길에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기에 영생한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 광경을 목격하며 남조선의 수많은 인사들과 려운형선생의 친척, 친지들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덕과 의리의 세계앞에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애국적삶을 빛내여온 려운형선생과 그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군들에게 려운형선생의 유가족들에 대하여 늘 알아보고 제기되는것은 제때에 자신께 보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려운형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한몫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들의 가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자식들의 장래문제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덕망은 정녕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주체86(1997)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생을 마친 려운형선생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의 서거 50돐을 계기로 평양시추모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여 혁명전사의 생을 더욱 값높이 빛내여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8.15민족통일대회참가를 위해 서울에 나가는 려운형선생의 딸 려원구동무가 아버지의 묘소를 찾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애국열로 피끓던 려운형선생이 세상을 떠난지도 이제는 70년이 되였다.

하지만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민족이 기억하는 통일애국인사로 영생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력사의 증견자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이 높이 받들어모신 또 한분의 탁월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인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온 민족을 따뜻이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어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장 정 철

대학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청년대학생들
—평양철도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뜨거운 은정은 일용잡화주문목록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의 그 어느 구석에도 빈틈이 있을세라 한평생 끊임없는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 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 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주체66(1977)년 1월 초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는 새해 인민경제 각 부문의 계획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에는 일용잡화주문목록과 생산계획도 상정되였다.

이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차례 보아주신것이고 해당 부문 일군들도 다 알고있으므로 국가계획위원회 책임일군은 벌써 묶은 일용잡화주문목록을 설명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제지시키시며 신중한 어조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잡화는 인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데 어떻게 벌써 설명도 없이 채택할수 있겠습니까. 다른것은 몰라도 잡화만은 그렇게 채택할수 없으니 한 품종도 빼놓지 말고 목록을 그대로 천천히 읽으시오.

그리하여 국가계획위원회의 책임일군이 연단에 나와서 일용잡화주문목록에 있는 206가지의 품종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나라의 한해 경제사업을 론하는 중요한 회의장에서 《숟가락, 저가락, 참빗, 꽃병, 손바늘…》 하고 목록을 읽는 일군의 목메인 소리가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수첩을 펼쳐놓으시고 이미전에 여러차례나 몸소 보아주시며 교체주신 목록의 잡화명세를 다시금 하나하나 적으시였다.

머리희슥한 항일의 로투사들도 적고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경제부문의 지도일군들도 모두 적었다.

격정의 분위기에 휩싸인 회의장에는 한동안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잡화명세를 받아적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리였다.

받아쓰는 누구에게나 밤사발이며 국사발, 연필이며 낚시줄, 재털이, 바늘을 비롯한 일용잡화의 이름들이 새로운 의미로 들려왔다.

그런데 한동안 명세를 읽어내려가던 그 일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잠겨지기 시작하였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였다.

그 일군만이 아닌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모두가 《돈보기, 손거울, 고무줄, 손톱깎개…》 하고 매 가정과 매 사람들에게 언제나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어야 할 206가지의 일용잡화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며 소리없이 흐느끼였다.

이윽고 그 일군이 목록을 다 읽고 자리에 들어가 앉았으나 회의참가자들은 축축히 젖은 눈길을 받아쓰는 일용잡화들의 이름에서 떼지 못하고있었다.

장내를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일용잡화생산은 우리 당이 하나의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내밀고있는 문제이니만큼 새해의 잡화생산계획만은 모두 손을 들어 결정하자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먼저 손을 높이 드시였다.

순간 숭엄한 감정이 온 장내를 휩쓸면서 회의참가자들도 일제히 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이 결정의 무조건적이고도 철저한 관철을 혁명앞에, 인민앞에 담보하는 엄숙한 맹세의 표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의 이 결정을 더욱 의의깊게 하기 위하여 박수로 환영하자고 하시며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올리며 회의참가자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소소한 물건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시려는 우리 수령님.

장내는 위대한 수령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예와 긍지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선군정치는 우리 혁명의 백승의 기치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단에 따라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에 대한 격동적인 소식은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7월의 축포성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승전포성으로 이어지고있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전반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하신 절대불변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시찰로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조국과 혁명,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그처럼 엄혹한 고난의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의 명맥이 꿋꿋이 고수되고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강위력한 힘을 억척같이 마련해나가고계신다. 인민군대가 불패의 당군, 천하무적의 일당백혁명강군으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수행하는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로 위용떨치고 자립적국방공업이 우리 식의 첨단무기들을 팡팡 생산하는 개발창조형의 혁명공업으로 장성강화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민족사적인 대승리, 대변혁들이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을 통하여 선군정치야말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꽃피워줄 만능의 보검이라는것을 더욱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한 백승의 기치이다.

반제군사전선은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지켜낼수 없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리로 하고있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조국과 혁명을 지켜내자면 첫째도 둘째도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불패의 군력은 정치의 기반이다. 무적의 총대우에서 그 어떤 피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담대한 배짱과 담력도 나오고 원쑤들을 제압하는 필승의 지략도 발휘되는 법이다. 미제가 힘이 약한 나라들에 끼리낌없이 전쟁을 도발하고 무차별적인 폭탄세례를 안기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은 우리에게 최강의 군력이 있기때문이다.

군력강화를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한 시련의 시기에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시였다. 이 나라의 높고낮은 험한 령을 낮에도 밤에도 넘으시며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사생결단의 그 길에는 오성산의 위험천만한 칼벼랑길과 초도의 세찬 풍랑길도 있고 강계의 눈보라길도 있다. 민족만대의 영원한 승리와 무궁번영을 위한 선군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이 그대로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여 우리 조국은 오늘과 같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병주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최상의 경지에서 강화되고있다.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며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싸움군,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혁명강군이 우리 인민군대이며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첨단무장장비도 우리 식으로 다 만들어내는것이 우리의 국방공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은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침략자도 덤벼들수 없는 금성철벽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인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놓은 강위력한 보검이다.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2대력량이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힘은 그 어떤 력무기로도 제뜨릴수 없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군민대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고 최후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군민일치는 백두밀림에서 마련된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군민이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전투적우의를 같이하며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고귀한 전통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군민일치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주동이 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시대의 위대한 혁명정신으로 나래치도록 하시였으며 군민이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속되도록 헌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 길에서 군대와 인민이 사상도 투쟁기풍도 하나가 되고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군민대단결의 풍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오늘 군민대단결은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로 되고있다. 반제반미대결전의 승리도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는 군민의 결사항전으로 이룩하고 전화위복의 기적과 영웅신화도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안아오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도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펼쳐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탁월한 선군정치로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올수 있게 한 비약의 원동력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가장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 우리 인민군대는 실천투쟁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낳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결사관철의 함성드높이 안번 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조국청사에 자력자강의 시대적귀감으로 빛나고있다. 인민군대가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함남의 불길로 이어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도 우리 인민군대가 서있다. 세기를 주름잡는 특출한 창조방식, 무한대한 열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온 나라가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총돌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선군이야말로 자강력을 증대시키고 자력자강의 위력을 최대로 높여주는 전투적기치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도 자력자강으로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만리마시대의 참된 혁명가가 되여야 할것이다.

김 성 남

후대사랑의 메아리

이 세상 모든 사랑과 정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이야기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의 갈피갈피에 무수히 수놓아져있다.

온 나라 아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시였던 우리 수령님 이야기를 오늘도 인민은 그리움속에 전해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도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잊을수 없는 주체83(1994)년 7월 5일과 6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 협의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소집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신 력사적인 회의였다.

협의회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협의회 둘째날인 7월 6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경공업부문의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올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어떻게 공급했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부름을 받은 일군이 6월말까지 전국의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새옷을 다 해입혔다고 말씀드렸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주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였다.

순간 회의참가자들의 눈앞은 흐려졌다. 뭉클 젖어드는 생각에 가슴은 뜨거워졌다.

간고한 항일혈전의 나날 마안산에서 겪으신 일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두고두고 외우시며 온 나라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국가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얼마나 웅심깊었던가.

그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는것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인민적시책으로 전통화되였다.

흐르는 세월속에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조차 범상하게 여기고있었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은 늘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하여 나라의 중대한 경제문제를 토론하는 회의에서까지 그 문제를 알아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며 학생소년들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하지만 온 나라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학생들에게 새옷을 해입힌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당과 국가의 전통적인 시책을 집행하였을 뿐인 일군에게 거듭 고맙다고 하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 남기신 자애로운 음성이 오늘도 들려온다.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되여.

본사기자 리 금 분

장마철피해막이와 농작물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자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나간다

강원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인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시험발사성공소식을 끓어오르는 흥분속에 접한 강원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동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오늘의 대승리를 우주에 떠올린 위대한 당에 모두가 알곡을 증산하여 기쁨의 보고를 드리고 뜻깊은 올해에 승리자의 영예를 빛내이자고 하면서 그들을 농작물비배관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비상히 앙양되고 협동벌마다 전투분위기가 더더욱 고조되고있다.

그럴수록 도에서는 가물과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문천시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지효성복합알비료를 자체로 만들어 포전에 대한 깊은층비료주기를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시일군들은 지난해 남창, 교성협동농장들에서 이 알비료를 일부 포전에 도입하여 다수확을 낸 사실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질소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닭배설물, 진흙 등을 섞어만드는 새로운 지효성복합알비료는 화학비료보다 효과가 더 높다. 종전보다 아지를 3-4일정도 앞당겨 빨리 칠수 있는것은 물론 가물피해막이에도 좋다는것이 검증되였다.

시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한데 이어 시안의 전체 논면적에 이 비료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여러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과 한주일동안에 지효성복합알비료생산을 결속한 기세로 련속적인 공격전을 완강히 벌려 깊은층비료주기실적을 련일 높이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회양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의 영양관리에 큰 힘을 집중하고있다. 이들은 농작물이 영양물질을 많이 요구하는 시기인것만큼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을철의 알곡소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것을 명심하고 대용비료주기를 근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에 쑥우림액과 일정한 정도의 뇨소를 혼합하여 농작물에 분무해줌으로써 정보당 100kg이상 알곡을 증수한 경험에 토대하여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또한 농작물에 질소와 칼시움 등을 공급하는것과 함께 토양소독에 효과적인 대용석회질소비료를 생산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결과 군적으로 천여정보에 대한 대용비료치기를 적기에 해제끼는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금강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 세계를 굽어보는 주체조선의 위상을 가슴뿌듯이 안아보며 강냉이밭에 대한 세벌김매기를 와닥닥 끝낸 기세로 비배관리를 보다 짜고들고있다.

군일군들은 진거름에 쑥을 재웠다가 그것을 벼포기사이에 주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리용하게 하고있다. 이것을 받아들인 협동농장들의 포전들에서는 벼의 영양상태가 이 비료를 주지 않은데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지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현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모든 농장일군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 논벌메피해를 철저히 막게 하고있다.

농장들에서는 살충제에 도토리나 가래나무잎과 줄기의 우림액을 섞어 농작물에 분무해주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병해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있다.

무진막강한 주체조선의 국력을 또다시 만방에 과시한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두가 헌신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군적으로 전체 논면적에 대한 대용농약치기를 단 하루동안에 진행하는 놀라운 성과가 창조되였다.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는 농작물의 생육조사에 기초하여 비료치기를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필지별, 포전별로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환희의 불도가니에 휩싸여있는 도안의 그 어느 협동벌에서나 올해 알곡생산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애국충정의 열도가 더욱 높아지는 속에 전투실적은 나날이 부쩍 뛰여오르고있다. 도적으로 논발김매기전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협동벌에 나래치는 련속공격전의 기상, 이것은 특대사변을 안아온 장쾌한 뢰성이 울려퍼지는 조국땅에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기 위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총돌격전을 들이대고있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의 굳은 의지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오철훈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신계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습니다.》

신계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충정을 다해나갈 한마음안고 떨쳐나 큰물과 비바람,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벌들에 달려나간 군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실적을 부쩍 올리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날자별, 포전별일정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큰물과 비바람,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 끝내도록 앞장에서 농업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갔다.

드넓은 농장벌들이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찾고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는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지형상특성으로 하여 습해를 받기 쉬운 침교협동농장의 강냉이밭에 대한 배풍길공사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이 일당백공격정신으로 이 공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그들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군안의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도 이 농장에 달려나와 적극 도와주었다. 이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충정의 마음을 안고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였다. 결과 짧은 기간에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1만 수천m의 물길을 기술적요구대로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곡농장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농장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을 큰물과 비바람,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그들이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식량증산투쟁에 앞장서 달려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여러 영농공정이 겹치는 속에서도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결과 6 000m의 물길에 대한 물파기를 진행하여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수십km의 반물도랑치기와 수백m²의 장석보수 등의 공사에서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 농장에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이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었다.

다른 농장들에서도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장마철피해막이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렝이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도입

염주군 남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렝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면 많은 로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습니다.》

염주군 남압협동농장에서 새끼우렝이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여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되였다. 포전들에 새끼우렝이들이 종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논벼의 초기생육이 훨씬 좋아진것은 물론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에서 그만한 로력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었다.

비결은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알깨우기를 농장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킨데 있다.

농장에는 우렝이를 잠재우는데 쓰이는 건물이 있었다. 일군들은 이 건물을 개조하여 잠재우기와 함께 알깨우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여러모로 좋았다.

우선 알깨우기에서 나타나군하던 일련의 부족점이 없어지고 새끼우렝이생산을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었다.

종전에는 알깨우기를 여러곳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많은 로력이 들었다. 또한 매 성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달라 온도와 습도보장, 관리에서 차이가 났으며 결국 이것은 알깨우기률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알깨우기를 기술수준이 높은 몇명의 기능공들로 진행하므로 이러한 편향이 극복되였다고 한다.

결과 지난해에 비하여 알깨우는 기간을 한주일정도 앞당기면서도 알깨우기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절약적측면에서 놓고볼 때도 리롭다.

농장에서는 령에네르기건축을 지향하는 현대건축의 추세에 맞게 알깨우기실을 에네르기절약형건물로 꾸리였다. 하여 적지 않은 량의 연료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잠재우기와 알깨우기를 한 건물안에서 진행할수 있어 아주 실리적이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천한 결과는 이렇게 좋았다.

무엇이 이런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그것은 당정책을 신지 온이 날 때까지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관점, 당정책관철에서 전국의 맨 앞장에 서겠다는 배짱이 안아온것이였다.

올해에 우렝이생산량을 대폭 늘이기 위하여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알깨우기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농장에서는 잠재우기실을 개조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우렝이유기농법도입에서 기수가 되겠다는 이들의 야심만만한 배짱과 완강한 실천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게 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이 합쳐지고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는 속에 알깨우기실은 짧은 기간에 꾸려지게 되였다.

지금 군에서는 이 농장의 알깨우기실을 본보기로 하여 여러 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더 높이 비약해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렝이유기농법도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방영진

농작물영양관리개선에 모를 박고

대동군 와우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대동군 와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작물들의 영양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7월은 농작물들이 영양생장으로부터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수 있다. 두 생육단계가 겹치는 이 시기에 농작물은 특별히 많은 영양물질을 요구한다. 만일 이 시기의 영양관리를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이삭당 알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어 정보당 수확고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칠수 있다.

이로부터 농장일군들은 농작물의 영양관리개선이자 알곡증산성과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한 면밀한 작전을 시급히 전개하였다.

우선 논벼들의 잎에 영양제를 일정한 량의 물에 풀어 2-3회정도 분무해줌으로써 품종적특성에 맞는 잎색이 보장될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들은 잎덧비료주기작전을 과학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뇨소비료용액은 한주일간격으로 잎덧비료로 주는것이 좋다. 그래야 비료의 허실을 막으면서도 논벼의 영양개선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것을 제때에 포착한 일군들은 리오균과 카리리찬비료용액을 뇨소비료용액과 3일간격으로 엇바꾸어 분무해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포전안에서의 층하는 물론 포전별생육상태에서의 차이도 훨씬 줄일수 있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모든 포전들에서 다같이 알찬 열매를 거둘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논벼농사에서 성과가 이룩될수록 일군들은 생육후반기에로 이행하는 강냉이들의 영양관리개선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각 작업반들에서는 개꼬리가 나오기 전까지 물과 진거름을 일정한 비률로 섞은것을 강냉이밭에 집중적으로 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결과 강냉이농사에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게 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농작물들에 대한 영양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또한 앞선 영농방법들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농장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과학농사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켰다.

한해농사의 전과정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하루하루의 련속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농작물들의 영양관리개선을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알곡증산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훌륭하다.

본사기자

장마철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녕원군 마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우리가 다 말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지난 어느날 조선인민군 천태성소속부대 군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였다. 중산군 학생협동농장 제1작업반구역에 있는 도로를 가로지나간 자연흐름식물길구간이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자주 메군 하여 여러해째 농사에서 지장을 받군 하였다는것이였다.

120여정보의 논에 생명수를 대주고 장마철이면 그 주변의 포전들이 큰물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때에 물을 뽑아주어야 할 물길에 이상이 생겨 해마다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 군은 물론 농장의 일군들도 이 문제때문에 애를 쓰지만 정작 공사를 하자면 품이 너무 엄청나게 드는것으로 하여 손댈 염두를 내지 못하고있다는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부대지휘관들은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농장에는 이런 구간이 2개소나 더 있었다.

현장에서는 부대지휘관들의 긴급협의회가 열리고 즉시 해당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농장일군들이 공사현장에 달려왔을 때에는 벌써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도착시킨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전투에 진입한 상태였다.

농장일군들은 감동에 북받쳤다. 농장을 위해 수백t의 니탄을 마련해주고 천여m³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제3, 4작업반구역의 물길가시기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던 부대군인들이였다.

이런 그들이 오늘은 이렇게 또다시 어렵찬 공사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있는 한 단 한뙈기의 포전, 단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것이 부대군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군인들은 한여름의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무더위속에서 땀을 철철 흘리며 일손을 다그쳐 품이 엄청나게 든다던 3개소에서의 공사과제를 단 하루동안에 해제꼈다. 결과 수백정보의 포전들을 가물과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산판에 울려퍼진 승리의 함성

장진림산사업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소식에 접한 장진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일터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지난 4일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서로서로 얼싸안으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는 로동자들에게 초급당부위원장 방정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 우리 조선의 국력이 하늘에, 우주에 닿았습니다.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통나무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갑시다.》

여기저기에서 그의 말에 호응하며 모두가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로동자들의 일손에 번개불이 이는듯싶었다.

수로작업소의 로동자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으로 하여 미국놈들이 아마 혼이 나갔을것이라고 하면서 통나무운반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갈전, 중남, 서한작업소의 로동자들도 이제는 앉은자리에서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새 힘이 부쩍부쩍 솟는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통나무운반방법을 찾아내여 하루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공무동력직장을 비롯한 림산사업소아래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하고 끝없는 환희에 넘쳐 누구도 일터를 떠날줄 몰랐다.

그들모두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배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의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나무모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덕천시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기적적성과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강서분무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날에날마다 불붙는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온 강서분무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 크지 않은 이 공장은 오늘 농업근로자들의 알곡생산투쟁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지난 4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였던 공장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배인 리효속동무가 빠른 기간에 새형의 분무기를 개발할것을 발기하였던것이다.

바로 며칠전에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자기 공장이 출품한 배낭식미립분무기가 1등으로 평가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상반년도안으로 끝낼 목표를 걸고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 새형의 분무기를 개발하고 생산에 들어간다는것은 조련한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이때 확신에 넘친 지배인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물론 어려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아시는 공장의 일군들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투쟁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새형의 분무기를 개발완성할수 있다.

일군들모두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해 5월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이들이 만든 배낭식미립분무기를 보아주시고 하신 그 말씀…

강서분무기공장에서 배낭식미립분무기를 잘 만들었다고,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우리 식으로 개조한 11종의 농기계에 필요한 수지부속품들을 모두 자체로 생산하였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분에 넘치는 평가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열백배의 힘과 용기가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곧 기적과 혁신창조의 원동력이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아시는 공장답게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선구자집단이 되자!

초급당위원장 최동이동무가 앞장에서 지배인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고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새형의 분무기개발을 위한 력량이 꾸려지고 첫시작부터 피타는 사색과 탐구, 시험으로 이어지는 긴장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이들은 주변농장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으면서 새로 개발하는 분무기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좋아하고 쓰기에도 편리한 농기계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다.

이렇게 개발완성된 새형의 배낭식광폭미립분무기를 시험해본 결과 성공적이였다.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 분무기는 배낭식수압분무기에 비해서는 12배, 배낭식미립분무기에 비해서는 4배정도로 능률이 높다. 그리하여 한사람의 로력으로 40분정도면 한정보의 포전에 대한 분무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분무되어나오는 용액의 립자들이 매우 미세하고 균일하기때문에 종전보다 농약을 1/3로 줄여도 농약의 농도는 몇배나 높아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나날이 수요가 높아가고있는 이 분무기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줄 아는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창조정신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다.

결사관철의 의지, 굽힘없는 공격정신

하루 분무기생산량 200여대로부터 수백대로 장성, 하여 불과 며칠동안에 전국의 농촌들에 수천대의 분무기를 생산보장…

이것은 올해 가물피해막이전투기간에 이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자료의 일부이다.

진정 한치도 어길수 없는 전투명령이였다.

배낭식분무기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농촌에 배낭식분무기를 많이 만들어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상의 전투명령으로 받아들이였다.

공장은 그야말로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로 부글부글 끓었다.

가물과의 전투는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며 오늘 우리가 생산하는 한대한대의 분무기는 이 투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전투무기이다.

결국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성과여부가 다름아닌 우리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모두가 이러한 자각으로 화선용사마냥 용약 떨쳐나섰다.

하지만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천대의 분무기를 생산보장한다는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창조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이들은 다른 단위에서 넘겨받았던 여러대의 사출기들을 원상복구할것을 결심하였다.

큰 공장에서도 도리머리를 젓고 밀어놓았던 이 기계를 공장자체의 기술력량으로 복구한다는것은 보통때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였다. 하지만 수천대의 분무기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급선무였다.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총발동하여 마침내 생산장성의 지름길을 열어놓고야말았다. 부분품생산량이 5-6배로 대폭 뛰어올랐다.

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로동자들을 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탄약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온 공장에 꽉 차고 넘쳤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최대로 앙양된 공장의 분위기에 맞게 로력을 보충해주고 걸린 문제들과 자재들을 해결해주어 그들의 열의가 그대로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분초를 다투는 전투를 벌려 끝끝내 수천대의 분무기를 생산보장함으로써 가물피해막이전투승리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의 혁혁한 성과를 두고 우리는 생각한다.

기적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당이 제시한 과업을 죽으나사나 기어이 집행하고야말려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된다는 철의 진리를 우리는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기풍에서 다시금 새겨안는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이렇게 사색하고 실천할 때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만리마를 탈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과학교육의 혁인 올해에 당의 교육정책관철에서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떨쳐가는 선구자집단이 있다.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속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능력있는 민족간부로 키워내는것과 함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에만도 대학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참으로 크다.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강령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완비하는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져 무려 3만 9천여건의 전자강의안개작사업이 새 학년도 교수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였으며 대학을 의학교육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첨단수준의 의료설비와 기구들을 대담하게 연구개발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카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눈전기생리검사기를 새로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수십건의 과학연구과제들이 빛나게 결속된것도 주목할만 한 성과이다.

위대한 당의 천명한 령도밑에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의학과학기술의 발전면모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과학교육성과들이 다름아닌 의학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 있는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보통때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통이 큰 작전들이 실제되고 련속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는 이 경이적인 성과는 과연 어떻게 창조된것인가.

자체의 인재력량을 적극 발동하여

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만리마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전형단위들의 비약의 밑바탕에는 바로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제 힘으로 투쟁과 전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 놓여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년간 눈에 띄는 성과들을 련발적으로 이룩해가고있는 대학일군들의 사업을 두시해보면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를 교육단위의 실정에 맞게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훌륭한 기풍을 엿볼수 있다.

그 뚜렷한 실례가 바로 종합대학교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의 일원화사업을 대학자체의 힘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는 여러 종합대학 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국가망을 통하여 10여개 의학대학의 교육자들이 서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필요한 자료들도 주고받으며 협의회형식으로 진행하는 이 방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일원화사업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였다.

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여 나라의 의학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또 하나의 진보로 되는 그처럼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대학자체의 인재력량을 적극 찾아내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한데 있다.

사실 지난해 책임일군들이 교육의 일원화사업을 국가망을 통해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펼치였을 때 대학의 많은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대학책임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하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저없이 전진하게 하였는가. 대학자체의 인재력량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였다.

어느 단위나 그러하지만 교육단위들에서도 설정한 높은 목표들을 달성할수 있는 지름길은 자체의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는데 있다.

대학일군들이 그것을 깊이 새기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무행정관리를 비롯한 교육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때 대학에서는 현 단계에서 제일 앞섰다고 하는 다른 교육단위의 프로그람을 그대로 가져다 그 단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내망을 구축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키일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허점들을 드러냈다. 한것은 의학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교육단위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것을 계기로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인재력량에 의거하여 이룩한 성과만이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깨달았다.

문제는 정보화실현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람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대학의 일군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 전에 무조건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를 모든 교원, 연구사들에게 깊이 심어주는것과 함께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대학의 인재력량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통이 큰 일관을 벌려나갔다.

또 다른 하나의 실례가 있다.

대학에서 콤퓨터에 의한 학생들의 실력평가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대학일군들은 지난 시기 리용하던 실력평가방법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결과 스쳐지날수 없는 일련의 부족점들을 발견하게 되였다.

실례로 진단문제만 놓고보아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설정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몇가지 측면에서만 분석할수 있도록 조건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진행하는 진단인것으로 하여 그 정도로 만족했던것이다. 인간생명의 기사들을 키워내야 하는 의학대학교육에서는 단 하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다시금 자각하였다.

문제는 실력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람개발을 맡아한 인제가 의학자들의 집단인 우리 대학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그릇된 관점이였다.

일군들은 이런 그릇된 생각부터 뿌리뽑기 위해 대학에서 비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젊은 교원에게 이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기로 하였다.

당조직의 믿음을 심장에 새긴 그 교원은 집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속에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드디여 인재양성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을뿐아니라 대학자체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람을 만들어내고 야말았다.

이것이 교원, 연구사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많은 교육자들과 연구사들이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도 자체로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결과 국가망을 통한 의학교육의 일원화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결함으로써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할수 있었다.

자체의 인재력량에 의거하여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의것을 창조하려는 이들의 비상한 열의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한 100여개 학과목들의 교수안들에도 비껴있으며 학생들이 대학병원의 종합수술장에서 진행하는 수술 전과정을 보면서 수술실기를 익힐수 있도록 통화상전송체계를 구축한 실습용외과수술실을 비롯한 현대적인 실험실습실들과 강의실들에도 어려있다.

대학일군들의 사업경험은 과학연구력량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여있는 대학에서도 교육사업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서 핵심적이며 선봉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여 대담하게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주고 힘있게 떠밀어줄 때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렇다. 대학에서 비약의 큰 보폭을 힘차게 내짚을수 있은것도, 시대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은것도 자력자강의 정신을 투쟁과 전진의 원동력으로 튼튼히 틀어쥐였기때문이다.

만리마의 위력은 집단주의위력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이룩한 의학과학기술성과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연구과제들이 최근 몇해사이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룩된것이다.

첨단의료설비를 연구개발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카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학의 의학과학기술교류소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눈전기생리검사기를 만들어냈을 때 약학부 제형개발연구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니코틴반창고의 시제품을 2개월만에 내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체육선수들이 리용하게 될 살로크림과 공기음이온발생기, 두뇌활성안경을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한 자랑찬 소식이 전해지는것과 동시에 고려의학부 고려고전의학연구실에서는 《동의보감》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고려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난 시기같으면 보통 몇년씩 걸려야 할 연구과제들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어떤 연구과제는 단 두달동안에 결속하고 련속적으로, 다발적으로 통장훈을 부를수 있은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위력이 충분히 발휘될수 있도록 연구력량편성을 새롭게 한 이 대학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이다.

대학들에는 전문분야의 실력가집단이 있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협조와 협동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집단주의를 자기 발전의 힘있는 원천으로 하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만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전시기 과학연구사업을 이런 집단주의기풍속에서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과학연구활동이 대체로 강좌와 학부 또는 해당 연구소단위로 진행되고있었으며 다른 강좌나 연구소들과 서로 협동하면 얼마든지 쉽게, 빠른 기간에 결속할수 있는 연구과제들도 오랜 시일을 거쳐 힘들게 수행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현실을 깊이 료해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에 주목을 돌린 대학일군들은 해당 강좌나 연구소들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이들사이의 호상협동을 강화하면 연구사업에서 몇배의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그것은 그대로 교원, 연구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본위주의와 독단을 뿌리뽑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며 집단주의위력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좋은 방도로 될것이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학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분원들과 연구소들사이에 서로 련계를 잘 가지고 협력하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면서 분원들과 연구소들이 절대로 본위주의를 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학이 만리마를 타고 교육부문의 앞장에서 내달릴수 있는 방도는 바로 집단주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잡한것이 있다. 집단주의위력이 충분히 나타날수 있는 연구목표들을 바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학적인 화력을 집중한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진행중에 있는 연구과제들의 진척정형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매 강좌와 연구실들이 연구목표로 설정한 과제들에서 현재 애로되는것은 무엇이며 힘을 합쳐주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것들인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학적인 협동, 배합작전을 펼치였다.

여기서도 선후차를 잘 정하는것이 중요하였다. 대학일군들은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연구대상들에 먼저 힘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속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를 빠른 기간에 완성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좋았지만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사업에서의 집단주의위력을 실지체험을 통해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도 의의가 컸다.

대학에서는 또한 년한에 관계없이 능력있고 실력있는 교원, 연구사들을 대담하게 선발하여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맡겨주어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대학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불어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위력을 깊이 새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과 뜻,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는 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종합대학교육에서의 일원화를 위한 사업이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있던 때 있은 한가지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명이다.

대학에서는 이 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자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에서 숱한 품을 들여 연구완성한 새로운 치료방법들과 교수방법들도 국가망을 통하여 신속히 보급하자는것이였다.

사실 자기들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가 어려있는 성과품들을 고스란히 남에게 넘겨준다는것은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의학교육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떨치자면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것을 실지체험으로 새긴 이들이였기에 자기들의 연구성과들을 많은 단위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집단주의, 참으로 이것은 자본주의사회가 흉내조차 낼수 없는 사회주의의 위력이고 우월성이였으며 방대한 연구과제들을 안고있는 대학의 과학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낳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이런 집단주의기풍으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당에 기쁨을 드린 여러건의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고 몇년동안이나 결속을 보지 못하던 연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오늘도 이들은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양성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자체의 튼튼한 과학기술인재력량에 의거하여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떨치며 나아가는 이들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들을 안아오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글 본사기자 김성민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총비서를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모잠비끄공화국을 방문한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엘리씨우 쵸아낌 마챠바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총비서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총비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모잠비끄에 파견해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모잠비끄의 독립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모잠비끄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과 인민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과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가 참가하였다.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개막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개발한 1 500여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단위로 출품된 전시품들에는 원료, 자재, 설비들의 국산화실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제안들 등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성과자료들이 있다.

전람회기간 과학기술발표회, 지적제품류통사업 등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18일에 있었다.

전광호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강국을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규정하시고 그 총적목표와 과업,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발명, 새 기술들이 창조되여 첨단설비를 비롯한 기술수단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체로 생산보장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전람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새 기술창조사업을 활성화하고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성과들과 새 기술혁신안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온을 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함께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려명거리건설에 바쳐진 애국의 마음

각지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려명거리에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한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의 애국의 마음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맹원들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은 야간지원돌격대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전으로 완공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간에 각급 근로단체조직들과 연 90여만명의 근로단체일군들, 동맹원들이 려명거리건설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참가하여 각종 물동운반과 버럭처리, 지대정리 등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수많은 로동보호물자와 기공구,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을 지원하여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성, 중앙기관 청년들과 시안의 학생청년들로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 4월 중순까지 연 28만 5천여명의 청년학생들이 물재와 벽돌을 비롯한 물동운반과 버럭처리, 지대정리작업을 해제낌으로써 공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과장이상 일군들을 속도전청년돌격대 려단, 대대들에 내려보내어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하고 많은 연유와 물재, 기공구를 보장해주었으며 로동보호물자와 생활필수품, 식료품지원도 통이 크게 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전으로 완공하기 위한 시공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수한 시공단위들과 로력혁신자들에게 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십만점의 경쟁상품을 보장하여 경쟁총화를 의의있게 진행함으로써 려명거리건설전역에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야간지원직맹돌격대활동으로 방대한 작업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기공구와 생활필수품, 식료품을 지원하여 건설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월 려명거리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녀맹돌격대를 조직하고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켜 물동운반과 벽지바르기, 지대정리 등 작업을 맡아하면서 연 3만 7천여명의 군인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리발과 피복, 신발수리봉사를 성의껏 진행하도록 하였다. 많은 량의 강재와 기공구, 로동보호물자와 생활필수품, 식료품을 지원하였으며 친어머니심정으로 1 500여명의 건설자들에게 생일상도 성의껏 차려주었다.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학생청년기동선봉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을 려명거리건설전투장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성의있는 후방사업으로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으며 내각청년동맹위원회와 인민봉사총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보통강구역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돌격대활동으로 벽지바르기와 지대정리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한편 성의있는 후방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란봉구역 건승1동 초급녀맹위원회의 녀맹원들은 낮에는 돌격대활동에 참가하고 밤에는 인민군군인들의 작업복을 깨끗이 빨아 수리해주어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밖에도 평양시녀맹위원회, 중구역녀맹위원회, 대동강구역녀맹위원회, 동대원구역녀맹위원회, 선교구역녀맹위원회, 인민봉사총국녀맹위원회, 평양시직맹위원회, 내각직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운동으로 려명거리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많은 근로단체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려명거리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공사 전기간 야간지원돌격대지휘관으로 사업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직총중앙위원회, 녀맹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평양시직맹위원회, 평양시녀맹위원회의 일군들은 제인 전투조직과 이신작칙으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매일 맡은 작업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철주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야간지원청년돌격대에 망라되여 건설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물질적지원도 성의껏 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황남공업대학, 남포기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청년대학생들과 전국각지의 중학교, 소학교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려명거리건설장에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보내줌으로써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공사를 태양절전으로 완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친선모임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친동지역방문 15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메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외무성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로친선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의 념원과 지향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우리 나라에 로씨야련방 정부에서 식량 기증

우리 나라에 로씨야련방 정부에서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기증하는 식량이 16일 청진항에 도착하였다.

로씨야련방 정부의 식량지원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기술혁신목표를 현실성있게

덕성탄광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탄광의 실정에 맞게 기술혁신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탄광적으로 석탄운반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 해결방도는 베아링의 수명을 늘여 탄차리용률을 높이는데 있었다.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것을 결심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탄차베아링의 수명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아링의 윤활제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소조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소조책임자는 윤활제에 들어가는 값비싼 수입자재를 국산화하는데서 기본고리로 되는 새로운 윤활제료의 최적조성확증을 위한 시험을 맡아 과학연구기관들과 기계공장들로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소조원들도 새로운 윤활제료의 기술적특성에 맞는 베아링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이런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거쳐 자체실정에 맞는 새로운 윤활제료가 연구되여 탄차베아링의 수명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도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협동밑에 수동식동발회수기, 동발보수용쟈끼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을 연구도입하여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이들은 탄광에서 절실하게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기술혁신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를 높이 들고

증송의 기적소리는 어떻게 울리는가

함흥차량부속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든든한 로반이 있고 두줄기 궤도가 있네. 기관차도 좋지. 그렇지만 차량부속품이 없다면 기적소리가 높이높이 울릴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공장을 보고 없어서는 안될 보배공장이라고 한다네.》

이것은 함흥차량부속품공장에 로동자들이 새로 입직할 때마다 이곳의 오랜 로동계급이 잊지 않고 해주는 말이다.

소박하나 자기 일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긍지를 안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증산의 동음을 즐기차게 울려가는 함흥차량부속품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우리는 여기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그들의 투쟁단면을 전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얼마전 함흥차량부속품공장의 한 생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장내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무거운 침묵을 깨치며 공장초급당일군인 김남길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자체의 힘으로 할수 있단 말이지요. …》

그러면서 그는 공장의 로동계급을 미덥게 돌려보았다. 사실 몇시간전 63마찰프레스가 동음을 멈추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철렁 떨어져내리는것 같았다.

만리마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는 기관차대들과 객화차대들, 철길소대들에 더 많은 부속품들을 보내주어야 하겠는데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늦은저녁이지만 생산현장에서 협의회를 조직한것도 바로 그래서였다.

《우리들의 힘으로 기어이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로동자의 목소리가 카라앉기도 전에 책임기사 김창원동무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리였다.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자재보장을 따라세우면 단 며칠동안에 수리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기술자들과 토의한 전투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기술자들을 바라보는 김남길동무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증정의 200일전투의 나날에 있었던 일이 더듬어졌다. 그날은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던 어느 새벽이였다. 그때 뜻밖에 용선로를 세워야 할 긴급정황이 발생하였다. 로바닥에 균렬이 생기면서 쇠물이 새어나왔던것이다. 이때 공장의 기술자들은 로를 세우지 않고 균렬을 때울 기발하고도 대담한 발기를 하였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증정의 200일전투가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는 때가 아닌가. 인민이, 조국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렇게 웨치며 로보수전투의 앞장에 서는 기술자들을 온 공장이 따라섰다.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해 로를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던 로보수전투는 40분동안에 끝나게 되였다. …

김남길동무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봅시다.》

이렇게 되여 631마찰프레스 수리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설계원 김선헌, 설비부원 류철수동무들이 제기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나갈 때 선반작업반의 김주남, 위호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그에 뒤질세라 밤을 새워가며 필요한 형타지구들을 가공해냈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하여야 한다. 열렬한 애국심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소식에 접하였을 때 다시한번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였다. 정녕 김덕의 광부들이 언제 한번 불가능이라는 말을 해본적이 있었는가. 계절도 없고 해빛도 없는 깊고깊은 땅속에서도 조국의 새부를 늘어간다는 긍지를 안고 광물증산전투를 벌린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김덕의 광부들처럼 투쟁하자!)

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가며 긴장하게 벌어지는 조건에서 로동자들의 식사보장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때 지배인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그것을 도맡아나섰다. 전투현장에서 때없이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루 세끼 안해들과 함께 수십명 로동자들의 밥을 짓느라 일손을 놓을새 없었으나 가슴은 더없는 긍지로 설레였다.

바로 이런 일군들이 곁에 있었기에 로동계급은 키의 주저앉다싶이 하였던 공장을 자기 힘으로 일떠세우고 해마다 수많은 차량부속품들을 생산하여 철도수송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모든 종업원가족들이 너도나도 지원사업에 떨쳐나섰다.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남편들과 함께 나라의 동맥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언제나 공장에 마음을 얹고 사는 그들은 《나와 우리 소대》라는 말을 즐겨외우며 광부들의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껏 떠밀어준 김덕의 가족소대원들의 모습그대로였다.

그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고무된 공장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 프레스수리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드디여 프레스를 시운전하는 시각이 왔다.

손에 땀을 쥔 수많은 사람들이 프레스곁에 어깨성을 쌓았다.

책임기사 김창원동무가 시동단추를 누르자 프레스의 주축과 마찰판이 쉬임없이 오르내리면서 소재들을 꾹꾹 찍어냈다.

《성공이다!》, 《만세!》…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서로 부둥켜안고 솟구치는 흥분을 소리높이 터치였다. 자기들이 보내주는 부속품에 의해 철길이 다져지고 기관차가 기세좋게 달리며 그와 더불어 나라의 새부가 늘어나고 인민의 웃음이 꽃펴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넘쳐나는 긍지와 보람은 형언할수 없었다.

그들은 공장앞으로 뻗어간 두줄기 궤도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그 궤도우로 기운차게 울려갈 증송의 기적소리를 자기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울리고 듣는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창조의 희열과 보람이 한껏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리경일

흥하는 집단에 넘치는 자랑

피현군자동차사업소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인민의 사회로서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피현군자동차사업소에 가면 종업원들 누구에게서나 스스럼없이 울려나오는 이런 말을 들을수 있다.

화목한 한가정처럼 정이 넘쳐나는 우리 집단이 제일이다.

화목한 한가정, 단합된 집단!

해마다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있는 사업소의 성과의 비결이 함축된 말이다.

문시명동무가 사업소 지배인으로 임명된것은 11년전이였다. 당시 사업소의 토대는 빈약했다. 종업원들도 자기 일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때 문시명동무가 생각해낸것이 사업소에 체육열풍을 일으키는것이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사업소를 단합되고 화목한 집단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사업소마당에는 배구장이 새로 생겨났고 지배인부터 가 하루일이 끝나면 배구장에 뛰여들었다. 6명의 선수가 한마음이 되여 운영해야 하는 배구경기는 림성원들사이에 긴밀한 뉴대를 잇게 해주었다. 작업반별, 소대별배구경기가 치렬해지자 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승벽심과 함께 자기 작업반, 소대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커가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음을 낳았다.

몇달후 군적으로 경기실력이 제일 강한 단위와 도전경기까지 하게 되였을 때 종업원들의 입에서는 《우리 사업소》라는 말이 긍지높이 울려나오게 되였다. 높아가는 체육열기속에 집단은 단합되고 얼마후에는 사업소가 모범체육공장의 영예를 지니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집단이 하나로 뭉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이 누구나의 심장속에 든든히 뿌리내렸고 그 확신은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낳군 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사업소건물건설과 축산기지건설, 종업원살림집건설 등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밀고나갔다.

사업소에는 이곳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수리기지도 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사업소에서는 차부속품들을 사오거나 수십리 떨어진 다른 단위에까지 가서 가공해오군 하였다. 운전사들이 차기관을 수리하기 위해 한번 길을 떠나면 며칠이 되여서야 돌아오군 하였다.

문시명동무는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지를 꾸릴 결심을 하였다.

이 발기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들이 문광선, 고영남동무를 비롯한 수리공들이였다. 늘 고장난 차를 놓고 안타까와하는 운전사들을 크게 돕지 못해 미안해하던 그들이였다. 하여 수리기지를 일떠세울 때 남먼저 미장칼을 들었고 밤을 새워가며 수리기지에 차려놓을 공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뛰여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지녁 수리기지의 내부미장을 하던 종업원들은 사업소구내에 울리는 경적소리에 일손을 멈추었다. 지배인 문시명동무가 몰고온 화물자동차의 경적소리였다.

《수리기지에 차려놓을 선반을 싣고왔소.》

지배인의 이 말에 사업소종업원들모두가 기뻐했다. 그 선반이 지배인 문시명동무가 수십리 떨어진 곳에 몇번씩이나 다녀오면서 품들여 해결해온 선반이라는것을 종업원들은 뒤늦게야 알게 되였다.

이런 진정속에 수리기지는 10여일만에 일떠서게 되였다. 이제는 이곳에서 차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도 척척 가공해내고 기관수리도 마음먹은대로 해내고있다. 뿐만아니라 군에 오는 다른 단위 차들에 대한 수리도 맡아해주고있다.

오늘 사업소는 군적으로 집단력이 강한 단위, 일 잘하는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사업소의 성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집단, 집단주의정신이 나래치는 집단은 흥하기마련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한마음한뜻으로 전속 앞으로!

사리원기관차대 전기기관차 《강행군 1.5-01》호 승무원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부름에 또 하나의 작업반이 호응해나섰다.

사리원기관차대 전기기관차 《강행군 1.5-01》호 승무원들이 6월초까지 년간 수송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만리마선구자대회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진군대오를 앞장에서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5월초 책임기관사 김철호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소식이 실린 당보의 구절구절이 가슴을 쳤던것이다.

《이 나라 어느 일터, 어느 초소든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 뜨거운 손길, 간곡한 유훈이 깃들어있지 않은 곳은 없다. 그 불멸의 업적을 높은 증산성과, 기적창조의 열매로 빛내여가는 작업반들은 천길지하막장에 있든, 심심산골의 토전에 있든 우리 장군님과 영원한 피줄을 잇고 사는 시대의 선구자작업반의 갈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는것이다.》

전기기관차 《강행군 1.5-01》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1(2002)년 1월 5일 몸소 보아주신 기관차이다. 그래서 누구나 뜻깊은 사적기관차의 기관사, 기관조사로 임명되군 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으로 맡겨진 수송임무를 언제나 앞장서 수행하리라 굳게 마음다지군 한다. 년간계획도 해마다 넘쳐 수행하여 기관차대적으로 늘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올해에도 태양절까지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였는데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년간계획완수의 보고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였던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정신세계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뒤떨어져있었는가.

바로 이때 김철호동무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사들인 박성준, 오영철동무와 기관조사들인 신윤철, 신일, 정금성동무였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들의 불타는 눈빛에서 김철호동무는 우리도 만리마를 타고 폭풍쳐달리자는 무언의 맹세를 읽을수 있었다.

뜻과 마음이 통하면 돌격구령도 필요없는 법이다. 하나로 합쳐진 그들의 마음은 곧 증송의 기적소리로 이어졌다.

년간계획완수자들도 늘어났다. 기관사 오영철동무가 4월말까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책임기관사 김철호동무가 또다시 년간 수송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언제인가 기관차의 긴급수리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오영철동무의 승무조원들이 금방 승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성준동무의 승무조원들의 등을 떠밀었으나 그들은 끝내 전투장을 뜨지 않았다. 어느새 알았는지 가족들까지 지원물자를 한가득 안고 달려나왔다. 밤은 퍽 깊었으나 그들은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힘차게 부르며 수리전투를 다그쳤다. 그들의 집단적투쟁기풍에 의하여 1주일이상 걸려야 했던 수리전투는 단 하루동안에 끝나게 되였다.

이렇게 《강행군 1.5-01》호의 승무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만리마선구자대회장으로 향한 진군길을 다그쳐갔다.

지난 6월 3일은 이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날이 아니였다.

마침내 작업반이 년간 수송계획을 완수한 그날 그들은 평양하늘을 우러러 삼가 승리의 보고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습니다.》

그속에는 천백마디 말보다 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었다.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령도자의 강행군보폭을 결사의 정신으로 따라서는 사람은 누구나 만리마선구자가 될수 있다는 진리를 《강행군 1.5-01》호 승무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던것이다.

정영철

우리 공장, 우리 일터를 사랑합니다

해주옷공장 종업원들

얼마전 우리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해주옷공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힘은 곧 사상의 힘이며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지난 6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공장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한 일군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창조되고있는 위훈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며칠후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게 되는 지난 4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소식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그러나 지배인 문명화동무는 서물리 돌격구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체적인 작전방안이 안받침되지 않은 돌격구령은 빈구호에 불과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그였다. 생산적앙양의 세찬 불길을 일으켜나갈 방도를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데서 찾은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서로 돕고 이끌며 온 공장이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봅시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돌격전의 앞장에 섰다.

생산지휘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들은 재봉작업반들에 달려나가 재봉기를 한대씩 맡고 옷가공전투를 벌리였다.

대오의 앞장에서 두릉, 세릉씩 해제끼는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있는 구령이나 다름없었다.

천리마대고조시기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이 공장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맥박쳤다. 맡겨진 옷제단작업을 다 그쳐 끝낸 제단작업반원들은 즉시 재봉작업반들의 전투현장을 차지했다.

우리 학생들이 입을 교복인데 어찌 네일내일이 따로 있을수 있겠는가.

이것은 제단작업반원들만이 아닌 온 공장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앞장에서 꽃피워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더 많은 일을 할 열정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재봉2작업반은 공장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공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작업반이다. 비록 기능은 미숙하고 나이는 어려도 생산에서 앞서나가려는 그들의 야심은 만만치 않다.

언제나 맡겨진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며 남보다 앞서달리는 비결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안아온 결과이라고.

실로 그랬다.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적극 도와주고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마운 마음들이 바로 위훈의 밑거름이 되였던것이다.

재봉2작업반원들만이 아니였다. 자기 맡은 일은 아니지만 재봉공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지구들을 창안제작하여 옷가공속도를 높여준 김영철동무며 자재사업으로 바쁜 몸이지만 짬만 있으면 작업현장으로 달려와 재봉공들을 돕군 하는 안명숙동무를 비롯하여 집단을 위하는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전투현장에서는 날마다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공장종업원들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넘쳐나는 자기들의 일터를 두고 한사람같이 말한다.

우리의 일터를 사랑한다고.

본사기자 리건일

전민총돌격전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히천기초식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온 참된 일군

룡길공사중앙지휘부 황해북도려단 정치부장이였던 로력영웅 최성덕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숨결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온 룡길공사중앙지휘부 황해북도려단 정치부장이였던 최성덕동무, 그는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구보로 달려온 참된 일군이였다.

우리는 최성덕동무가 새겨온 불보다도 뜨거운 생의 자욱자욱을 통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삶과 투쟁의 위치를 어디에 정하고 어떤 실력과 실적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불 같 은 인 간

불같은 인간, 이것이 바로 최성덕동무에 대한 대중의 평가이다.

얼마전 최성덕동무가 단천발전소건설장으로 가던 길에 잠간 집에 들렸을 때였다.

안해 송옥춘동무가 수십년간 떨어져살다싶이 했는데 이제는 함께 살면 안되는가고 물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나야 당에서 키워준 영웅이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말일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최성덕동무는 단천발전소건설장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곁을 떠났다.

비록 겉모습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만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고동친 정치일군, 하기에 오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온 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태우던 최성덕동무를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황해남도룡길 1단계공사가 벌어지던 지난해 4월이였다.

당 제7차대회전으로 저수지무넘이언제공사를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졌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다나니 모두가 지칠대로 지치였다.

그런데 이때 귀에 익은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동무들,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되오. 힘을 냅시다.》

최성덕동무가 공사장에 나와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며 하는 말이였다. 언제나 돌격전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나아가는 기수, 이것이 바로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새겨진 최성덕동무의 모습이였다.

최천발전소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큰물로 하여 도로가 파괴되였을 때였다.

즉시 다리를 건설하지 않으면 공사에 필요되는 자재들을 운반할수 없었다. 룡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토의끝에 그 어려운 과제를 황해북도려단에 맡겨주었다.

최성덕동무는 일군들에게 말했다.

《무조건 해내야 하오. 그래야 당앞에 떳떳다진대로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있소.》

최성덕동무는 남먼저 사품치는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그의 뒤를 이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한몸이 육탄이 되여 힘찬 전투를 벌렸다.

최성덕동무의 실천적모범은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황해북도려단에서는 단 2일동안에 다리건설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개천-태성호물길과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공사, 최천발전소건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가 벌어진 지난 기간 최성덕동무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날과 날로 빛내여왔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신계군대대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우며 헌신하던 일군이였습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때부터 함께 일한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룡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모두가 추억하는 최성덕동무는 이렇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한걸음의 양보도, 한치의 드팀도 모르는 불같은 인간이였다.

실 력 가 형 의 지 휘 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이며 어제날의 실력만으로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설수 없다는것이 최성덕동무의 신조였다.

하기에 그는 피타는 노력으로 꾸준히 지식의 탑을 쌓아나갔으며 기술혁신안들을 끊임없이 창안하여 당이 맡겨준 중요대상건설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천발전소건설장에서 물길굴콩크리트치기를 할 때였다.

수천㎥에 달하는 모래를 비롯한 많은 자재를 운반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으로 자재를 운반하면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현장을 돌아보고난 최성덕동무는 려단기술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어떻소. 내 보기에는 운반로선을 륜환식으로 새롭게 형성하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사속도를 더 높일수 있습니다.》

그는 기술일군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륜환식으로 된 운반도로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였다. 결과 공사속도를 2배이상 높일수 있게 되였다.

어느 한 공사장에서 많은 량의 암축공기배관을 수입해야 할 일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최성덕동무는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할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배관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밤을 새워가며 고심하였다. 이 과정에 최성덕동무는 재질이 강한 수지를 리용하여 배관을 만들어쓰면 철관을 대신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였다.

그의 발기에 기술일군들이 분발해나섰다. 결국 수지를 리용하여 공기배관을 해결함으로써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성덕동무는 백마-철산물길공사장에서 잠관공사를 할 때 선진적인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아치 및 벽체콩크리트치기를 련속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저수지무넘이언제공사에 새로운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수백의 세멘트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지난 기간 최성덕동무는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숱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고 대중을 기술혁신운동에로 적극 불러일으켜 나라에 리익을 주고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기에 돌격대원들은 최성덕동무를 《발명가정치부장》이라고 정답이 부르며 따랐다.

(실력으로 당을 받들고 실력으로 조국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성덕동무가 가슴속에 지닌 생의 좌우명이였다.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당일군

우리와 만났던 려단의 전 정치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최성덕동무는 뜨거운 인간미를 지닌 참된 당일군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해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것이였다.

미루벌물길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 10만산대발파를 진행할 때였다.

도화선에 불을 달았는데 발파구역에 갑자기 2명의 어린이들이 나타났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수많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어린이들을 향하여 어서 뛰여오라고 안타까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때 누군가 사람들을 헤집고 어린이들을 향하여 총알같이 뛰여가는것이였다.

려단정치부장 최성덕동무였다. 그는 두 어린이를 무작정 찌안고 되돌아달리기 시작하였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그는 두 어린이를 한몸으로 덮으며 땅에 엎드렸다.

불과 30초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였다. 최성덕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백마-철산물길공사때 온과군대대에는 리동무라고 하는 착암수가 있었다.

어느날 대대에 나갔던 최성덕동무는 리동무가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오?》

이렇게 말머리를 뗀 정치부장은 착암기를 틀어쥐고 온 하루 리동무와 함께 일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최성덕동무의 진정에 감동된 리동무는 마음속생각을 터놓았다.

그때부터 최성덕동무는 리동무가 대오의 앞장에 서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었다.

그 나날 최성덕동무가 바쳐온 노력은 얼마이고 남모르게 걸은 길은 얼마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

품결에도 그리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날 눈물을 흘리는 리동무에게 최성덕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리동무,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는 어머니당의 품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최성덕동무의 뜨거운 인정미와 사랑속에 수많은 돌격대원들이 로력혁신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나고 국가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언제나 자기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최성덕동무였기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늘 《우리 정치부장》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랐다.

최성덕동무가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고 돌격대원들의 절혼상을 남부럽지 않게 차려주기 위해 헌심을 쓰던 일들을 우리는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최성덕동무는 오늘도 불같은 열정을 안고 살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동지들을 위해 사심없이 바친 그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 ※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동지들의 추억속에 남는 생이야말로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삶인것이다.

특파기자 박철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고 흠모하는 위인중의 위인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신문들 특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가 그이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도이췰란드, 스웨리예, 네팔에서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력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자기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번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를 의미하는 포성과도 같다.

조선은 사회주의재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 도이췰란드 드레즈덴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찬양하고 김정은동지께서 게시기에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멸망불패이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실로 위대하다, 자주성을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김일성동지의 존함은 만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눈부신 성과들은 우리모두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특히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에서의 성공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새 사회건설을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고 열렬히 흠모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도이췰란드, 스웨리예, 네팔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신문들이 5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자브뜨라》는 《20세기의 위대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령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선을 해방하시였다.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그이께서는 조선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에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안기시였으며 전후 페허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은 조선의 현실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여러 나라 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였다.

《뜨루도바야 로씨야》는 《밝은 태양의 모습 김일성동지》라는 제목으로 언제나 태양과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만사람을 따뜻이 대해주시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를 격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쁘쏘쁘스까야 쁘라우다》는 《그이를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미증유의 전환을 이룩한 20세기와 더불어 김일성각하의 존함은 길이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이를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령도의 거장, 인간사랑의 화신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브이보르》는 《태양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의 그 어디에 가나 태양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의 영상을 뵈올수 있다.

주석의 미소에는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는 만족과 긍지가 깃들어있다.

또한 사회주의조선의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어려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주석께서 개척하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은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드팀없이 이어지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손길아래 눈부시게 번모되는 조선의 모습, 날로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과 더불어 김일성주석의 태양의 미소는 영원히 빛날것이다.

하바롭스크변강인터네트신문 《제브리 데웨》도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인간추물들의 망측한 정치만화

력사의 낭떠러지에 몰려 당장 명줄이 끊어지게 된 박근혜잔당들이 그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얼마전 《정통전략》으로 자처하는 이자들은 괴뢰국회의원회관에서 《보수신당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대한애국당》이라는것을 내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산송장인 박근혜의 구린내나는 몸뚱이에서 《대한애국당》이라는 구린기가 제바라나온셈이다. 력사에 참새떼 앉은 격으로 여기저기에서 기신기신 모여든 어중이떠중이들이 《보수의 가치》니, 《새로운 우파정당》이니 하면서 박근혜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겠다고 기염을 토한 꼴은 참으로 가관이였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극우보수정당이 조작된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박근혜잔당들의 단말마적추태이다.

《대한애국당》이라는 오물통에 키여든자들로 말하면 희세의 악녀인 박근혜를 신주모시듯 하면서 년의 탄핵을 반대하고 무죄석방을 짖어대는 반동을 부려 인민들의 규탄과 조소를 받아온 인간쓰레기들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한애국당》은 박근혜의 떡찌끼를 얻어먹으며 온갖 추악한짓을 일삼은 인간추물들의 집합체이다.

이 당의 공동대표감투를 뒤집어쓴자들만 놓고 보아도 지난 시기 박근혜에게 붙어 《국회》의원과 극우보수단체의 회장자리를 차지하고 《종북》소동과 동족대결에 앞장서온 악질보수분자들이다. 특히 조원진이라는자는 남조선에서 지독한 악질전박계, 《《세월》호주범 7적》으로 락인된 역적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제몸값도 모르고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판에서 개처럼 쫓겨난 세상 못난이이다.

그런데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 과떨의 함정에 처박힌 력사의 패잔병들이 창피한줄도 모르고 보수신당을 내온다 어쩐다 하며 분주함을 피우고 로망하는 미친 할미를 당장 구원할듯이 허세를 부리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희세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보수신당의 조작으로 괴뢰보수진영의 분렬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게 되였다. 현재 괴뢰보수진영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새누리당》으로 세쪼각 난 상태인데다가 그 지지률이라는것도 바닥을 헤매고있다. 누을 자리 보고 발 편다는데 이런 판에 박근혜잔당들이 또 보수신당간판을 내걸었으니 보수패거리들이 꼴을 싸쥘만도 하다.

박근혜년과 함께 당장 매장되여야 할 역적무리들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느니,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겠다느니 하고 악을 쓰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초불민심에 한사코 역행하는 이런 극악한 대결광신자, 패륜패덕의 무리들이 되살아나게 되면 남조선정치판이 또 어떤 판장판이 될지 모른다.

외세의 바지가랭이와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더러운 역적들이 머리를 쳐들고 돌아칠수록 악취밖에 풍길것이 없다.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비추어보아도 괴뢰보수패당은 이미 처박힌 력사의 무덤에서 아예 썩어 문드러져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잔당들이 무덤속에서 바퀴새끼처럼 기여나와 민심을 우롱하며 더러운 망동을 부리지 못하게 깨끗이 쓸어버려야 할것이다.

지금 박근혜잔당들이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과떨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질을 치고있지만 소용없다. 박근혜역적패당의 파산운명은 막을수 없는 숙명이다.

허 영 민

조로친선관계발전의 력사적리정표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된지 17돐이 되였다.

주체89(2000)년 7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로씨야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로수뇌상봉이 진행되였으며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조로공동선언은 21세기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한 력사적인 문건이다.

조로공동선언은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공동선언에서 조로쌍방은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적 및 지역적안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하고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전반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반대할데 대한 문제, 두 나라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실현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21세기를 세계 모든 인민들이 번영하는 세기로 되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공동의 견해를 확인하였다.

조로공동선언채택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뿐아니라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로공동선언채택이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0(2001)년과 주체91(2002)년, 주체100(2011)년에 로씨야를 방문하시여 조로친선의 뉴대를 굳건히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차례에 걸친 로씨야방문과정에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는 조로공동선언의 력사적의의를 확인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방향과 조치들에 대해 합의하시였다. 2001년 8월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되였다.

조로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이며 의지이다.

로씨야는 우리 나라와 국경을 접한 이웃이며 조로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친선관계이다. 외무의 간섭과 압력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것은 두 나라의 공통된 목적이다. 이것은 조로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우리 인민은 로씨야와의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사회적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있다.

로씨야도 우리 나라와의 관계발전을 귀중히 여기고있다.

최근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여러 계기들에 미국이 조선의 《핵 및 로케트위협》을 떠들고있는데 문제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돌려온 력사는 조로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조로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유익하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로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 지역과 세계의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물의를 일으키는 정보원정치개입사건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시기 정보원이 감행한 불법적인 정치개입사건들의 진상을 폭로하는 자료들이 새롭게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난 2012년에 있은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당시 괴뢰정보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행한 선거개입소동의 일단을 립증하는 자료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사회전반에 보수《정권》에 대한 반대기운이 고조되고있던 2012년에 있은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이 민심을 억누르고 득세할수 있은것은 결국 정보원의 비렬한 여론조작, 외곡책동의 결과였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진상을 까밝힐데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여왔다. 지난 2012년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인터네트를 통해 박근혜역도의 《대통령》당선에 유리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류포시킨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당시 괴뢰당국은 그에 대한 기만적인 수사놀음을 벌려놓고 《사실무근》이니, 정보원직원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행위》니 뭐니 하는 뻔뻔스러운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사건을 어물쩍해버리고말았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적폐청산기운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지난 시기 력사의 그늘속에 가려워졌던 보수패당의 범죄행적이 차츰 밝혀지면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을 폭로하는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난것이다. 폭로된 자료들은 괴뢰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어떤 비렬한 음모책동도 서슴지 않는 더러운 정치협잡군들이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1년 10월 남조선에서는 서울시장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시민단체출신의 후보가 《한나라당》(당시)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시장으로 당선되였다. 남조선 각계가 평한것처럼 그것은 《보수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반감의 표출》이였다.

이로 하여 극도로 당황망조한 괴뢰보수패거리들은 반보수로 지향된 민심을 억누르기 위해 파쑈적탄압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너절한 정치협잡놀음을 벌리였다.

남조선언론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괴뢰정보원은 서울시장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1년 11월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력량을 총동원하여 인터네트홈페지들을 장악》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항간의 여론을 어떻게 외곡, 조작할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다음해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시 《허위정보류통과 민심치단이 필요》하다고 쪼아박았으며 그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장악하여 20~40대의 인터네트사용자들속에 보수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보수적경향을 가진 인터네트광고의 비중을 높인다는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보고서에 밝혀진 인터네트광고란 기업체들을 동원한 광고를 의미한다고 까밝혔다. 이것은 괴뢰보수패거리들이 기업체들까지 위협공갈하여 민심을 기만하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써먹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괴뢰정보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이런 보고서들을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검토를 맡았으며 청와대는 정보원에 여론조작활동을 위한 지령을 직접 떨구었다. 리명박역도의 지시에 따라 괴뢰정보원산하 싸이버심리전단의 네트워크활동을 담당한 조직의 규모가 2배 가까이로 커지고 인터네트를 통한 모략선전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정보원의 여론조작놀음에 당시 보수여당이 직접 관여하였다. 2012년 4월에 있은 19대 《국회》의원선거와 그해 12월에 있은 18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인터네트에 야당후보들을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고 민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이 일어난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드러난 사실들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규탄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이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직접적인 조작과 지령에 따른 고의적인 범죄행위였으며 《박근혜, 최순실정치추문사건》에 못지 않게 남조선정치계를 강타할 또 하나의 추문사건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데 바빠맞은 괴뢰보수패거리들은 정보원의 문건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가 하면 《옛날 일을 왜 자꾸 들추는가.》고 제편에서 얼을 올리면서 범죄행적을 가리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고 범죄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괴뢰보수패당의 집권시기에 감행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장본인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권력욕에 환장하여 민심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괴뢰보수패당은 그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우편배달부들 생존권사수투쟁 전개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14일 서울에서 우정로동조합의 주최로 우편배달부들의 생존권사수투쟁이 전개되였다.

먼저 진행된 집회에서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호소문은 우정당국이 수익성을 운운하면서 배달부들에게 살인적인 무료로동과 장시간에 걸치는 중로동을 강요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이로 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이 계속되고있으나 배달부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호소문은 폭로하였다.

호소문은 우정당국이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있으며 배달인원보충은커녕 장시간로동을 당연한것으로 여기고있다고 성토하였다.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청와대주변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싸드》반대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 표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싸드》반대투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지였다.

토론자들은 이전 《정부》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싸드》배치책동은 원불교인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다고 규탄하였다.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원불교성지가까이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맞서는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의 《싸드》반대투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시적인 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성지수호와 《싸드》철거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집권자의 사대굴종, 동족대결적인 망발을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3일 《민족공조의 길이냐 외세추종의 길이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집권자가 미국행각기간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이라느니, 《미군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것》이라느니 하고 사대굴종적 망언을 늘어놓다 못해 조공외교를 펼친데 대해 규탄하였다.

도이췰란드에 가서는 각 나라 당국자들을 만나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전 《정권》과 다를것이라고 기대했던 동포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미국이 북을 상대로 쓴 상투적수법으로서 단 한번도 제대로 된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힘있다고 자처해온 미국도 안되는 방법을 힘없는 남조선이 써서 통할수 있겠는가에 대해 현 《정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

최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세계핵무기실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2017년부터 10년동안 핵무기유지 및 갱신에 4 000억US$, 앞으로 30년동안에는 핵무기현대화에 1조US$의 막대한 자금을 랑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행위이다.

미국은 《핵축감》이요, 《비핵세계》요 하는 나발을 때없이 불어대군 한다. 오바마는 대통령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뒤에서는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고 앞에서는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라는것을 광고하면서 세계를 심히 기만, 우롱하였다.

지금도 역시 같다. 얼마전에 미전략군사령관이라는자는 미국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한마디로 저들의 핵무기는 평화수호용이라는것이다.

세계에 여러 핵보유국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핵무기유지와 현대화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랑진되는가를 놓고서도 알수 있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핵무기철폐운동흠페지에 소개된 세계적인 핵무기실태자료에는 미국이 핵무기개발에 투자하는 자금은 다른 핵국가들의 총 지출액을 릉가한다고 밝혀져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가 다른 나라들을 선제공격하여 핵전쟁을 도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세계최초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핵범죄자이며 수많은 핵무기들을 비축해놓고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끊임없이 공갈해온 핵위협가해자인 미국이 평화수호, 세계대전방지를 운운하는것은 그야말로 삶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터질 노릇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실지로 미국은 그 숱한 핵무기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갱신하고있다.

미국방성은 《비지니아》급핵잠수함의 기본화력체계인 《토마호크》순항미싸일수직발사관을 신형발사관으로 교체하는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해군은 다음해 10월부터 그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잠재적적수들에 비해 절대적인 핵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미제의 발악적인 핵군비증강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미국이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목표로 핵무기사용계획까지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는데 필요한 만능수단으로 간주하고있는 미국의 핵정책에 비낀 침략적, 지배주의적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미래의 전쟁을 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 국방전략보고서에 쪼아박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목적은 군사적우세, 핵우세에 의거하여 지역의 대국들을 제압, 견제하고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있다. 동북아시아를 장악해야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을 차지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그런데 지금 핵무기에 의거한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개꿈으로 될 위험에 처하였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삼은 대가로 미국의 본토는 더는 안전한 지역으로 되지 못하고있다. 로미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어떻게 해서나 미국의 핵우세를 보장하려 하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남조선에 《싸드》를 시들려 배치한 미국이 최근에 알라스카에서 《싸드》에 의한 첫 요격시험을 진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는 핵군비경쟁의 도가니속에 깊이 빠져들고있으며 핵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기현대화책동은 여러 핵보유국들의 불안을 자아내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핵무기현대화에 힘을 넣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핵무기를 전쟁을 막고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보장할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보고있는 주변나라들은 핵무력강화에 경쟁적으로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핵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장본인,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범죄자이다.

조선반도에서 짙어가는 핵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도는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비상한 속도로 강화하는데 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공화국이 대륙의 관문을 든든히 지켜서있기에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방위를 위한것이며 핵전쟁 그자체를 막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핵무력현대화책동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금 반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에 의하여 증대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줄기차게 강화해나갈것이다.

리 현 도

지역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 호소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12일 한 외교석상에서 단결과 협조를 이룩할것을 지역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현시기 지역에서 날로 확대되는 테로행위들은 나라들사이에 분렬을 야기시키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할 구실을 낳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지역나라들이 더 굳게 단합하여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서로 돕고 협력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현 당국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

일본의 도꾜에서 최근 현 당국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8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아베정권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행진을 벌렸다. 신쥬꾸역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들은 모리또모학원을 비롯한 교육단위들에서 극우익교육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있는 현 당국자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그가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입고있다.

중국의 호남성에서는 지난 6월말부터 계속된 무더기비로 9일현재 83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되였으며 40만 1 000채의 살림집이 파손되였다.

총 피해자수는 1 2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료녕성에서는 6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무더기비로 약 4만 790명이 피해를 입고 710여칸의 살림방이 파괴되였으며 1 950㏊이상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크산주에서는 11일현재 사망자와 부상자수가 각각 5명, 20명으로 늘어나고 8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100여세대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 칠레에서 12일 리히터척도로 5.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콘셉씨온으로부터 서북으로 73㎞ 떨어진 수역에 있었다.

— 인디아의 비하르주에서 9일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났다. 벼락으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26명이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 슬로벤스꼬의 농업부문에서 심각한 가물피해를 입고있다. 11일 이 나라 정부는 현재 혹심한 가물이 계속되여 4만㏊의 농경지에 심은 알곡작물이 말라죽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적인 알곡소출량이 20~30% 줄어들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에서 큰물피해

ㄱ-7111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